

ARTICLE

11

농어촌마을의
당산숲
구성요소 및
문화에 관한 고찰

최재웅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ANNUAL REVIEW IN

191 서론

191 당산숲의 구성요소 · 문화 관련
연구사 고찰

194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지

2. 연구방법

197 당산숲의 3대 구성요소 및
당산숲문화

1. 당산숲의 3대 구성요소

2. 40마을별 3대 구성요소 모습

3. 당산숲문화

207 결론

농어촌마을의 당산숲 구성요소 및 문화에 관한 고찰

최재웅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투고일자 : 2008. 12. 01 | 심사일자 : 2009. 03. 09 | 게재확정일자 : 2009. 03. 19

국문초록

우리나라 농어촌은 인구는 적으나 국토경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자연경관과 전통생활문화가 남아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우리나라 40,000여 농촌마을 중 많은 수가 사라진 당산숲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경관으로서, 수백 년 전 마을 주민들에 의해 조성된 후, 현재까지 마을주민들에 의해 보전·관리되고 있는 전통경관이며 우리 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적 문화자산이다. 그러나, 근래에 개최된 마을숲 관련 학술대회에서도 발표의 주요 테마는 「마을숲의 개념」정립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그 동안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당산숲·마을숲에 대한 보다 명확한 실제 구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농어촌의 문화경관인 당산숲의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한 것으로서, 10년간의 문헌검색, 현지 답사활동 등을 통해 발굴한 40개 농어촌마을 당산숲의 조사·분석자료 중에서 당산숲의 3대 구성요소와 당산숲문화로서의 당산제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당산숲의 3대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당산나무는 내륙의 20마을 중에서 16곳, 해안가 20마을 중에서는 11곳이 있었는데, 당산나무를 정해두지 않은 나머지 13마을은 숲 전체를 당산나무로 여기고 있는 경우이다. 내륙의 20마을 당산숲에서 성황당은 9곳으로 45%, 돌탑은 6곳으로 30%가 나타났으며 두 개의 시설물 중 하나라도 나타나는 비율은 14곳으로 70%이다. 해안가 20마을 당산숲에서 성황당은 15곳으로 75%가 나타났는데, 돌탑은 20개 마을 모두에서 볼 수 없어 두 개의 시설물 중 하나라도 나타나는 비율은 15곳으로 75%이다.

당산숲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당산제를 비롯한 당산숲문화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간 매년 한 두 마을 정도의 당산제에 참가하여 40마을 중에서 강릉 구정리 등 11개 마을의 당산제는 직접 참관하였고, 화순 동산마을 등 4개 마을은 당산제 전날의 금줄 치기, 황토 뿌리기 등 준비상황을 참관하였다. 그 외의 마을은 당산나무나 돌탑에 있는 금줄 등을 통해 당산제를 지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론

우리나라 농어촌은 인구는 적으나 국토경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자연경관과 전통생활문화가 남아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우리나라 40,000여 농촌마을 중 많은 수가 사라진 당산숲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경관으로서, 수백 년 전 마을 주민들에 의해 조성된 후, 현재까지 마을주민들에 의해 보전·관리되고 있는 전통경관이며 우리 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적 문화자산이다. 이러한 당산숲은 일제강점기, 6.25한국전쟁, 새마을운동 등의 시기에 크게 훼손되고, 그 후에도 방치·훼손되어 왔으며, 근래에 이르러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2005)는 마을숲을 『농촌마을의 핵심경관』으로 인식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 개최된 마을숲 관련 학술대회에서도 발표의 주요 테마가 「마을숲의 개념」정립과 관련된 것일 정도로 당산숲·마을숲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계명대 한국학연구원 학술대회, 2006).

한편, 근래에 해안환경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수많은 섬과 긴 해안선을 갖고 있으며, 간척사업 등으로 해안이 매립되거나 도시화되면서 당산제의 폐지와 함께 해안가에 위치한 당산숲이 많이 사라졌으나, 아직도 동해안과 남해안의 어촌마을에는 당산제를 지내는 당산숲이 많이 남아 있다. 현재 정부의 농촌경관 관련시책에는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데, 경관과 숲에 대한 언급은 막연하고 포괄적이며,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못하다. 예로, 최근 제시된 농림수산식품부의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추진(안)」(2008. 11)은 방앗간, 성황당 등 사라져가는 농어촌의 문화공간을 정비, 활용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요소들은 당산숲이 유지되어 있는 마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당산숲에 대한 올바른 개념없이 농어촌을 막연히 다루고 있다.

농촌의 환경과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EU(유럽연합) 등에서 진행되어 온 국제적 논의의 핵심은 농촌의 문화경관, 전통경관에 대한 존

중·보전 노력과 그 방법론의 연구이다. EU 등 세계 각국은 자국 농촌의 문화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전통경관이 그 나라의 매력 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많은 외국 관광객들은 한국과 한국 농촌의 매력은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이창석과 유영한은 전국에 있는 생활환경보전림 즉, 당산숲·마을숲의 본 모습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이들이 귀중한 문화자원으로 우리 앞에 재등장할 것으로 기대한 바 있는데(2001), 당산숲이 외국관광객들에게 매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소개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농어촌의 전통경관인 당산숲을 잘 인식하고 그 가치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우리나라 농어촌의 실생활에 살아있는 문화경관인 당산숲의 3대 구성요소와 당산숲문화인 당산제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당산숲의 특성과 실체를 잘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당산숲의 구성요소·문화 관련 연구사 고찰

그동안 마을숲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조경학, 지리학, 임학, 생태학, 민속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되어 왔다(유제현, 1979; 김덕현, 1986; 김학범, 1991; 이원열 등, 1992; 장동수와 이규목, 1997; 윤영환 등, 1998; 김정태 등, 1999; 박재철, 1999; 최재웅과 김동엽, 2000; 남연화 등, 2002; 강현경 등 2004; 이상훈, 2005 등). 마을숲은 마을사람들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담은 마을 공용의 녹지로 마을문화가 오랜 세월을 걸쳐 집적되어 온 상징적 대상물로서 마을숲 내에는 마을문화를 상징하는 다양한 장식물들이 갖추어져 있는 사례가 많으며, 공원 녹지의 한국적 원형이라고 할 수 있고, 마을숲이 점점 훼손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전통문화에 대한 의식의 약화가 근본 원인이므로 마을숲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조치에 앞서 마을숲에 깃들여 있는 문화적 의미와 행위를 되살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김학범,

2005). 전통마을의 영역성을 나타내는 조영물로서 마을 숲, 당(堂)과 당목(堂木), 뒷동산, 연못 등이 있는데, 마을숲은 아름다운 정물경관을 이루고 당목은 지표경관(landmark)이 될 수 있다(신상섭, 2004). 중국의 풍수림(Feng-shui forest)은 지질과 문화를 반영하는 경관 모자이크로서 우리의 마을숲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Forman, 1995).

문화체육관광부가 2006년 3,000여명의 설문조사를 거쳐 선정한 「100대 민족문화상징」을 보면 당산숲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정자나무, 서낭당, 금줄, 굿, 풍물굿, 강릉단오제, 솟대와 장승, 소나무, 갯벌, 풍수 등 10개가 선정되어 있는데, 한겨레신문은 「민족문화상징 100 : 당숲」이라는 기사를 통해 당산숲을 전통문화의 보고(寶庫)로 소개한 바 있다(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69226.html, 2006). 문화재청에서는 2003년부터 「마을숲 문화재 자원조사」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산숲, 비보숲, 정자숲 등 6종류로 분류하고 보전 가치가 큰 숲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오고 있으며, 산림청은 2003년부터 「전통마을숲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효정(2008) 등은 은행나무, 소나무, 반송, 곰솔을 대상으로 하여 천연기념물과 시·도 기념물 노거수 97개소의 지정사유를 비교 분석한 결과 현재의 지정기준은 민속성, 종교문화성, 생활문화성, 역사성, 기념성 등 5개의 분류에 의해 지정되고 있으며 그 중 마을에 제사를 지내는 나무 등의 민속성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천연기념물이 시·도 기념물보다 더 많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근래에는 당산숲·마을숲의 복원 관련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최재웅과 김동엽, 2007; 김학범 등, 2008; 신상섭 등, 2008).

또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행정기관인 소위 「조선총독부」는 우리나라의 수목자원을 조사하여 「朝鮮巨樹老樹名木誌」(1919), 「朝鮮의 林藪」(1938) 등을 출판한 바 있다. 특히, 「朝鮮巨樹老樹名木誌」에는 우리나라 노거수가 함부로 베어지지 못하고 가꾸어진 이유와 내력·전설(傳説) 등을 서술하면서 노거수를 신목(神木), 당산목(堂山木), 정자목(亭子木), 명목(名木), 수(藪) 등 다섯 종류로 구별하고, 수는 다시 피서목

(避暑木), 호안목(護岸木), 풍치목(風致木)의 세 종류로 나누어 모두 일곱 종류로 구별해 놓고 각각의 뜻까지 풀이하고 있다(187~188쪽). 이것은 일본인들의 관점에서 그 개념을 구별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돌탑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특히, 신목과 당산목에 대한 풀이에서 신목은 그 나무를 신령(神靈)으로 여겨 제단을 만들고 가족이나 마을의 행복을 기원하며 매년 제사를 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당산목은 산신당(山神堂), 산왕당(山王堂) 등의 산제당(山祭堂)이나 성황당(城隍堂), 신당(神堂) 등의 당우(堂宇) 즉, 당집의 뒤에 있는 것으로서 당집의 신령은 출산, 병의 쾌유, 행복 등을 빌면 효험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집이 없더라도 그 나무에서 당산제를 지내면 그 나무가 당산나무가 된다. 당산목은 신목의 개념을 가진 것으로서 서로 다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명목이니 정자목, 피서목이니 하고 나누어 놓은 것은 일본인들이 자의적으로 구별해 놓은 것으로 생각된다. 각 수목의 아래에 쓴 내력·전설 부분을 보면 같은 풀이를 하면서 당산목과 신목으로 달리 표시하고 있다. 예로, 매년 정월 15일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서술한 전남 장성군 하오리의 노거수는 당산목으로 분류하고, 연 1회 동제를 지내는 것으로 표시된 경북 청송군 도평동의 노거수는 신목으로 분류해 놓았는데(32~33쪽), 매년 정월 15일 제사를 지내는 것이나 연 1회 동제를 지내는 것은 같은 내용으로서 서로 다른 개념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그들이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을 보면, 당산목이라고 표기한 곳에는 당집이 있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이 책에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총 5,300여 점을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북한지역을 포함하여 한반도 전체를 포함하고 있으나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의 것이 많은데 특히 전남에서는 순천, 화순, 장성군, 경북에서는 경주시의 것이 눈에 많이 띄었다. 충청남북도 북부의 노거수가 감소한 것은 이들 지역의 남벌(濫伐)이 심했기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으나, 북쪽으로 갈수록 일제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5,300여 곳 모두를 현지답사하여 조사했다고는 할 수 없으

며, 현재의 행정시스템과 비교해서 유추하여 볼 때, 그 당시의 조사작업은 먼저 행정력을 동원하여 마을로부터 해당 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도록 하부기관을 중용한 후, 그 자료를 모으고, 그 중 순천, 경주 등 몇 곳을 골라 현지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에 실린 곳과 본 논문의 조사대상지 40마을을 비교해 본 결과, 내륙에서는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해안가에서는 전남 완도군 군외면 당인리 등 3마을이 이 책에 수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40곳은 10년 간의 현장조사 결과로 제시된 대표적인 당산숲으로서 나머지 37마을이 누락되었다. 그 당시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한 당산숲은 신고되었으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은 마을의 신성한 공간이 훼손되는 것을 염려한 주민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의 조사대상지로서 당집을 1922년에 건립한 완도 소안면 맹선리 소선마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내용상의 오류로서, 본 논문의 조사대상지인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는 '原州郡 加里坡面 城南里'로 표기되고 전나무가 '명목'으로 적혀 있는데(138쪽), 음나무 항목(156~157쪽)에는 성남리는 보이지 않았다. 전나무 바로 옆에 있는 더 중요한 당산나무가 누락된 것이다.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는 느티나무가 '신목'으로 되어 있고(50쪽), 161쪽에는 잣나무가 '명목'으로 적혀 있다. 완도군 군외면 당인리는 느티나무가 '신목'으로 되어 있는데(15쪽) 느티나무는 해안가 마을숲 중의 노거수로서, 뒷산의 당산숲이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오류 중에서 중복 기재는 한 두 곳이 아니며 특히, 64쪽을 보면 전남 강진군 성전면 명산리는 팽나무에 대해서 수목번호 228번은 '피서목', 229번은 '명목'으로 적혀 있고, 성전면 금당리의 팽나무는 수고, 수령 등은 같은데 수목번호 237번은 '피서목', 238번은 '명목'으로 적혀 있다. 71쪽을 보면 전북 김제군 만항면 만항리는 같은 수령의 팽나무에 대해 수목번호 382번은 '명목', 383번은 '신목'으로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일제의 조사자료는 여러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참고자료로서 가치는 있다. 이선(2008)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의 연원과 제도에 관한 소고에서, 우리 민족 고유성의 정체를 파악하고 적절히 말살하고자 일제가 이러한 수목 조사를 한 것임을 보고한 바 있다. 고지도를 보면 훼손되기 이전의 우리 전통숲의 모습을 개략적이거나 파악할 수 있는데 조선 후기 지방지도인 전라남도 광양현(縣) 지도, 경상북도 영천군(郡) 지도 등이 그것이다(최재웅, 2008). 김기혁(2008)은 우리나라 고지도가 과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외국 지도학자들에게도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은 뛰어난 회화성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고지도가 일제에게 우리나라 침탈을 안내하는 도구로 악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산숲의 3대 구성요소는 최재웅과 김동엽(2000)에 의해 제시된 바 있는데, 조사된 17마을의 당산숲 중 황당은 6곳(35%), 돌탑은 4곳(35%)에 남아 있어, 2개의 시설물 중 어느 하나라도 나타나는 비율은 약 60%라고 보고된 바 있으며, 2003년에는 하나의 당산숲에 세 가지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강릉시 구정리 사례를 발굴하여 보고한 바 있다. 경북 군위군 대울리 한밤마을에 있는 소나무숲에는 진동단(鎭洞檀)이라는 터가 있는데, 1950년에 당산나무인 느티나무가 고사하자 마을사람들이 그 자리에 사각형의 긴 입석을 세우고 이것을 당산나무로 여긴 것으로서, 「돌로 만든 당산나무」라고 할 수 있다. 매년 이 입석에 금줄을 두르고 당산제를 지내왔으나 지금의 마을주민들은 2005년을 끝으로 폐지하였고, 당산제의 폐지와 함께 당산숲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면서 주민들에 의한 적극적인 보호는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가 보고된 바 있다. 국제경관생태학회(IALE)에서는 문화경관을 '살아있는 문화경관'(Living cultural landscape)과 '박물관경관'(Museum landscape)으로 분류하고, 살아있는 문화경관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한밤마을의 경우 후자에 속하게 되어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최재웅과 김동엽, 2007). 당산제 등 문화에 대한 연구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펴낸「한국의 마을신앙」(2007)에 잘 나타나 있다.

한편, 해안림에 대한 선행연구로서, 박재철(1998)은

「전북 농어촌 지역 마을숲과 해안숲의 비교고찰」에서 전라북도 해안지역의 12개 해안숲을 조사하여 숲의 물리적조건, 사회행태적 조건을 내륙의 마을원림과 비교고찰한 바 있다. 주강현은 민속학의 입장에서 내륙에서의 당산제 관련 문화(1993)와 해안에서의 당산제 관련 문화(2006)를 고찰한 바 있으며, 최재웅과 김동엽(2007)은 우리나라 해안가 당산숲의 특성을 밝힌 바 있다. 최재웅과 김동엽(2009)은 「농어촌마을 당산숲의 입지 및 구조 특성」을 통해 내륙과 해안가에 위치한 당산숲의 실체를 구명한 바 있으며, 특히 당산숲을 외국에 소개하기 위한 국제학회 발표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2001~2007).

제주 해안의 상징물 역할을 하면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 160여 개에 이르던 전통적인 '제주 포구'가 이제는 거의 원형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1972년부터 1980년까지 제주 해안 72곳의 포구 전경과 제주의 전통등대인 '도랫불', 액막이용 돌탑인 '방사탑' 등을 사진에 담은 서재철(2008)은 과거 포구가 있었던 장소를 확인한 결과 서귀포시 하효포구와 중문 대포포구 2곳을 제외하고는 본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음을 밝히고,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어촌마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하던 포구들이 해안도로가 마구 만들어지면서 전통적인 모습이 파괴된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인터넷 경향신문 ;「그 많던 제주 포구들 원형 사라졌다」, 2008).

긴 해안선과 갯벌을 보유하고 있는 전라남도과 경상남도 등의 지역에서는 훼손되어 가고 있는 해안환경을 살리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해안가 마을의 당산숲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실정이다. 강원도민일보에서는 어촌마을의 민속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잠재력에 대해 논하였다. 동해안 어촌에는 대부분 2개의 서낭당이 있으며, 하나는 마을의 산위에 있으면서 마을 전체를 수호하는 할아버지서낭당과 또 하나는 바닷가에 자리잡고 어민들의 해사를 도우며 어로의 무사안녕을 지켜주는 할머니서낭당이다. 동해(東海)와 관련된 역사와 문화, 민속, 생태환경은 총체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인터넷강원도민일보, 2007).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지

본 연구는 마을주민들이 당산제를 지내면서 보호·관리하고 있는 당산숲이 있는 마을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였는데, 40개 마을 중 함안군 서촌마을은 5년 전 쯤 당산제가 폐지되었으나 예외적으로 포함시켰다. 본 논문의 조사대상지는 내륙의 농촌마을 20곳과 해안가의 어촌마을 20곳 등 전국 40개 농어촌마을의 당산숲이다(그림 1).

조사대상지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기간의 연구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서, 내륙의 경우는 1999년부터 최근까지의 자료이며, 해안가는 2006년경부터 최근까지의 조사자료이다. 대상지 선정기준은 규모가 너무 작거나, 같은 시·군 지역에서 비슷하게 중복되는 사례는 피하였으며, 당산숲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을 전국에 걸쳐 선정하였다. 당산숲 외에 마을숲이 있는 경우는 함께 조사하였다.

하나의 농어촌마을에서 당산숲은 한 개만 있기도 하고, 당산숲+마을숲 또는 당산숲+당산숲의 모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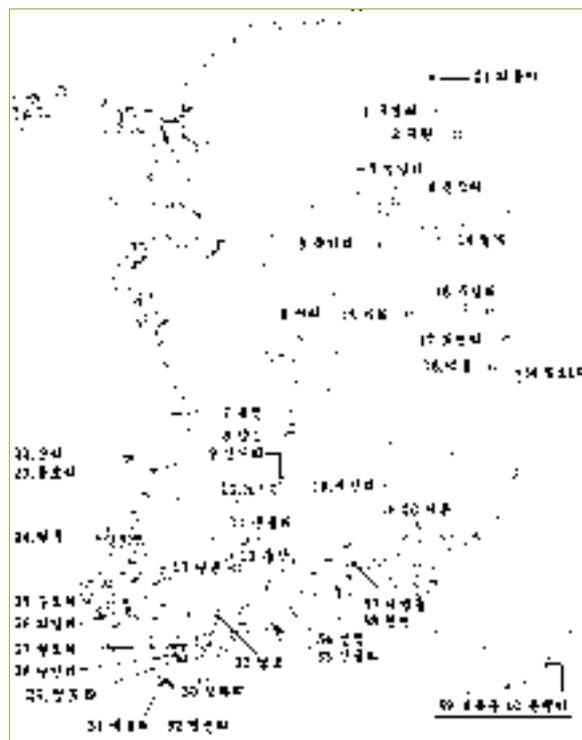


그림 1 내륙 및 해안가 조사대상지 40개소

표 1 내륙 및 해안가 당산숲 조사대상지 40개 마을

구분	NO	마을명	조사시기	비고
내륙	1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2000	3대 구성요소
	2	" 동해시 망상동 괴란마을	2004	정비사업
	3	"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1999	천연기념물
	4	" 영월군 북면 문곡2리	2007	당산제 부활
	5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마을	1999	산신당(천지당)
	6	" 옥천군 동이면 청마리 마티마을	2007	마한(馬韓)시대
	7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송천마을	2004	도로 확장-돌탑 이동
	8	"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양신마을	1999	복원사업
	9	" 남원시 운봉읍 신기마을	2007	조산(造山)
	10	" 남원군 주천면 덕치리 노치마을	2008	白頭대간
	11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운용리	2006	조산
	12	" 화순군 한천면 동가1구 동산마을	1999	돌피복 조산
	13	" 보성군 북내면 봉천리 당촌마을	2004	별신당
	14	경상북도 봉화군 물아면 개단1리 월계마을	1999	마을안내석-당산제
	15	"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하회마을	2007	중요민속자료
	16	" 영양군 석보면 주남리	2007	천연기념물
	17	" 영덕군 남정면 도천리	2007	정비사업
	18	" 포항시 기북면 오덕1리 덕동마을	2007	용계정
	19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2008	현고수마을
	20	"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서촌마을	1999	당산제 폐지
해안	21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외옹치마을	2006	용왕제
	22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진리	2007	위도
	23	"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2007	해신당
	24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월두마을	2006	복원사업
	25	" 해남군 문내면 무고리 증도마을	2006	매립지
	26	" 해남군 문내면 무고리 외암마을	2006	매립지
	27	" 완도군 군외면 달도리	2006	이순신장군 약쇄
	28	" 완도군 군외면 당인리	2006	5부분의 마을숲
	29	"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2007	구계등
	30	"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2007	장도(將島)
가	31	"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2007	보길도
	32	" 완도군 소안면 맹선리	2004	소안도
	33	" 장흥군 용산면 남포리	2005	소등섬
	34	" 고흥군 남양면 월정리 선정마을	2006	전라남도 기념물
	35	" 고흥군 봉래면 신금마을	2006	천연기념물
	3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1리	2007	七浦望齋藪
	37	경상남도 사천시 대방동	2007	대방진굴항
	38	"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원천마을	2008	관리 부실
	39	제주도 서귀포시 보목동	2006	제주도신화
	40	"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2006	제주도신화

표 2 당산숲과 마을숲의 구분

구분	당산숲	마을숲
정의	• 수백 여 년 전 마을주민들이 당산제를 지내기 위해 조성한 숲	• 수백 여 년 전 마을주민들이 마을의 보호를 위해 조성한 숲
공간의 의미	• 당산신(堂山神)과 자연(自然)을 위해 할애된 공간	• 인간(人間)을 위한 적극적 이용 공간
기능	• 마을의 성역으로서 신성한 곳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강함 • 풍수해 예방용이라는 기능도 겸하고 있음	• 풍수해 예방용으로서 실질적이며 공학적 기능이 강함
현재 용도	• 당산제 기간 동안의 출입기간 이외에는 마을주민들도 출입하지 않고 보호	• 특히, 여름에는 주민 및 외지인의 휴식, 물놀이 장소로 이용됨
구성요소 존재 여부	• 당산나무, 성황당, 돌탑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이 반드시 있음	• 당산나무, 성황당, 돌탑 중 어느 한 가지도 없음

보이고 있는데(최재용, 2008), 당산숲과 마을숲의 개념을 정리하여 구분하면 <표 2>와 같다.

(1) 당산숲

당산숲이란 당산(堂山)나무와 그 주변의 오래된 나무들로 이루어진 곳으로써, 마을주위로 흔히 보이는 자연림이 아니고, 토착신앙, 풍수지리, 자연재해 방지 등의 목적을 위해서 또한, 마을을 외부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대략 400여 년 전에(물론 훨씬 이전에 조성된 것도 많이 있다), 마을주민들에 의해 마을내부에 인위적으로 심어진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농촌의 고유한 공동체문화가 남아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마을주민들에게 당산숲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守護神)이 살고 있는 성역(聖域)으로서, 훼손될 수 없는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의 공간이다.

‘당숲’으로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 당산숲은 “마을주민들이 『당산제(堂山祭)를 지내는 숲』이며 토속신이 살아 있는 마을의 성역으로서, 대부분 음력 정월대보름 저녁에 거행되는 당산제는 일종의 물활론(物活論, animism)적인 전통생활문화이다”(최재용과 김동엽, 2005). 당산제 때 부정할 것의 출입을 막는다는 뜻으로 설치하는 금줄이 당산나무, 성황당(당집), 돌탑 등에 걸려 있다면 그것은 당산숲에 해당된다. 성황당을 만들 여력이 없는 곳에서는 지붕은 없으나 돌담, 벽으로 구획이 정리된 제단이 만들어져 있거나 커다란 제단석이 놓여 있는 경우도 있다. 당산숲은 마을숲과 달리 당산제 기간 이외의 평상시에는 마을주민들도 함부로 출입하지 않으면서 보호, 관리하고 있는 곳이 많다.

(2) 당산제

당산제(堂山祭)는 1년에 1~2번 정기적으로 당산숲에서 지내는 마을제사, 마을축제로서 당산제 기간 외의 나머지 기간에도 1년 내내 당산숲을 아끼고 보전하며 살아가는 마을주민들의 생활양식이다. 동제(洞祭)인 당산제는 마을주민 전체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의 안녕과 평화, 풍년을 기원하고, 조상과 자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출하는 마을공동체 축제행사로서,

당산숲 내의 당산목이나 성황당, 돌탑앞에서 제를 올림으로써 이루어지며, 행사날짜는 음력 정월대보름 저녁이 가장 많다. 전국적으로 볼 때 현재 잘 남아 있는 당산숲들은 나뭇잎 하나라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는 마을 자체의 불문율에 의해서 보전되고 있다(최재용과 김동엽, 2003). 당산제는 마을주민들이 당산숲·마을숲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 주는 원동력으로서, 당산제를 통해 주민들이 가치를 부여하고 보호, 관리함으로써 당산숲은 생명력을 얻게 된다.

(3) 마을숲

당산숲이 신성한 곳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반면, 마을숲은 자연제방의 수변(이나 해안가)에 띠형으로 배치되어 풍수해 등으로부터 마을과 농경지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기능이 강하다(최재용과 김동엽, 2006). 마을숲에서는 당산제를 지내지 않으며 당산나무, 성황당, 돌탑을 찾아볼 수 없다(표 2). 조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산숲과 마을숲이 동시에 조성되거나, 당산숲이 먼저 조성되고 그 후에 보조적으로 마을숲이 별도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신목(神木)으로서의 당산나무는 『삼국유사』에도 나타날 정도로 그 유래가 장구하며, 오래 전 마을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마을에 정착함과 동시에 마을의 안전을 지켜주는 신의 존재가 함께하기를 염원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마을숲은 마을에 정착한 후에 홍수 피해 등 많은 시련을 거치며 그 대비책으로 조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최재용 등, 2007). 당산숲과 달리 마을숲은 여름에 주민 및 외지인들의 휴식, 물놀이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10년 간의 문헌검색, 현지 답사활동 등을 통해 발굴한 당산숲의 조사·분석자료 중에서 당산숲의 3대 구성요소와 당산숲문화로서의 당산제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3대 구성요소는 당산숲의 형태, 크기, 수종 등을 실측조사할 때 같이 파악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조선거수노수명목지’ 등

일제에 의해 많은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본 연구는 처음부터 이러한 일제의 자료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수행되었다. 올바른 당산숲·마을숲의 개념과 실제 구명을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당산숲이 남아 있는 마을을 찾아 발로 뛰어 자료를 찾고, 마을의 노인분들로부터 숲의 과거, 현재 상태에 대한 유래를 듣고, 현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에 바탕을 둘 수밖에 없었다. 조선의 입수와 조선거수노수명목지는 마을숲의 옛 자료를 담은 문헌으로서 참고할 만하다.

당산숲의 실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당산숲의 관리 및 지속가능한 관리 대안 모색을 위해서는 당산제를 비롯한 당산숲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간 마을주민들의 양해를 얻어 매년 한 두 마을 정도의 당산제에 참가하여 왔으며, 본 연구대상지 40마을 중에서 11개 마을의 당산제는 직접 참관하였고, 4개 마을은 당산제 전날의 금줄 치기, 황토 뿌리기 등 준비상황을 참관하였다. 직접 참관한 마을은 내륙에서 강릉 구정리, 원주 성남리, 단양 북하리, 포항 덕동마을 등 4마을이고, 해안가에서는 속초 외옹치마을, 무안 월두마을, 완도 달도리, 당인리, 장좌리, 장흥 남포리, 고흥 선정마을 등 7마을이다. 당산제 전날의 준비상황을 참관한 곳은 내륙의 화순 동산마을과 해안가의 해남 증도마을, 외암마을, 완도 정도리 등 4곳이다. 그 외의 마을은 당산나무나 돌탑에 있는 금줄 등을 통해 당산제를 지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산숲의 3대 구성요소 및 당산숲문화

1. 당산숲의 3대 구성요소

(1) 당산숲의 세 가지 구성요소

당산목과 그 주변의 수목, 숲내 인공 시설물인 성황당, 돌탑이 선행연구(최재웅과 김동엽, 2000; 2003)에서 제시된 당산숲의 3대 구성요소이다. 당산제를 지낼 때 3대 구성요소에는 모두 신성한 대상임을 나타내는 금줄

을 치게 된다. 당산나무 이외의 수목도 소중히 관리하였으나, 설령 숲내의 다른 나무가 훼손되는 경우에도 당산목만은 절대 훼손할 수 없는 성역이며, 돌탑과 성황당도 마찬가지이다. 당산나무는 보통 숲내에서 가장 수령이 오래된 경우가 많으며 숲내의 다른 나무와 달리 마을주민에 의해 신성성이 부여된 나무이다. 영양군 주남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산나무가 고사하는 경우 부근의 아무 나무나 당산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종의 어린 수목을 고사한 자리에 심고 당산나무로 여긴다. 당산나무로는 오랜 수명을 가지고 있는 느티나무, 팽나무, 소나무 등이 대표적인 수종인데, 원주시 성남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나무도 당산나무로 종종 발견된다. 옛사람들은 줄기에 가시가 있는 음나무가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영험이 있는 나무로 알고 신성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황당은 당산제를 지내는 당집으로서 보성군 북내면 당촌마을에 있는 별신당이 1897년에 지어진 것으로 옛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40마을 중 나머지의 성황당은 전란 등을 겪으면서 소실되어 근래에 다시 지어진 것이다. 돌탑은 자연석을 원추형으로 쌓아 올린 것으로서, 강릉시 구정리의 돌탑은 균형이 잡히고 아름다워 대표적인 돌탑의 사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돌탑은 오랜 세월을 겪으며 많이 주저앉고 허물어진 경우도 있는데 지금의 사람들은 옛날의 튼튼하고 아름다운 돌탑을 쌓는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의성군 단촌면 새적골마을의 경우 돌탑이 많이 허물어져 있지만, 주민들은 자신들이 다시 쌓으려고 해도 옛 모습이 안 나온다면 허물어진 상태 그대로 보전하고 있다.

(2) 3대 구성요소별 당산숲의 내부 유형(모습)

당산숲의 3대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당산숲은, 돌탑과 성황당이 없이 당산목 및 수목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강릉시 구정리의 당산숲과 같이 세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당산목 및 수목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면서, 두 개의 시설물 즉, 돌탑과 성황당 중의 하나가 같이 있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당산숲의 모습으로 파악된다(최재웅과 김동엽, 2007).

표 3 구정리 당산숲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규격	형태
당산목 등 수목	당산목(소나무) 흉고직경: 93cm 수목(소나무) 수: 235주, 전체 평균흉고직경: 41cm	장방형, 띠형 등 다섯구역 전체 면적: 10,782㎡
성황당	3m×2m	목조건물, 기와지붕
돌담에 연결된돌탑	지름: 약 5.0m, 높이: 1.9m (돌담: 높이;1.1-1.5m, 폭;0.9-1.2m, 길이;12×16.5m)	타원의 원추형 (돌담-돌레는 원형)

참고로, 현재 3대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당산숲은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드문 경우이나, 이에 해당하는 강릉시 구정리 사례는 당산숲의 내부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정리 당산숲은 사진 1a에서 성황당으로 표기한 위치에 당산나무, 돌탑, 성황당 등 당산숲의 3대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① 당산목 및 수목

당산숲은 평지 부분은 장방형으로, 경사지부분은 띠형으로 되어 있다. 숲을 관통하는 소하천과 마을길·지형에 의해 5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당산숲 전체의 총 면적은 10,782㎡, 총 수목 수는 235주, 전체 평균흉고

직경은 41cm이다.

성황당 앞 좌측에 있는 당산목은 흉고직경이 93cm인 거목으로 중간 부분이 7~8년 전 바람의 피해를 입어 부러졌으며 수피가 없고 내부가 썩어 거의 고사상태에 있다. 당산목 둘레에는 일제강점기인 1940년경 일본인들이 파 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설치한 자연석 경계가 남아 있다. 이곳의 소나무들은 일제강점기에 비행기 연료용으로 쓰다며 수피에 상처를 내고 송진을 채취해 거의 모든 수목이 피해를 입은 상태이다.

② 성황당

성황당은 돌담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산제를 지내는 곳이다. 현재의 성황당은 그 이전의 것이 남아 마



사진 1 구정리 당산숲의 핵심공간



사진 2 구정리 당산숲의 3대 구성요소

을주민들에 의해 50여 년 전에 그 자리에 새로 지은 것이며 목조건물에 기와지붕을 하고 있다. 성황당이 있음으로써 당산제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곳이 훼손 불가한 신성한 숲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landmark로 작용함으로써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당산숲을 지키는 실질적인 힘은 성황당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빈 상태로 자물쇠로 잠겨 있다.

③ 돌탑 및 돌담

돌탑은 성황당의 1m 뒤에 있는데 원형으로 조성된 돌담과 연결되어 있다. 지면에서 돌담 위까지는 1.1m, 돌담 위에서 탑 위까지가 0.8m 정도이다. 돌탑 위 40~50cm 높이의 입석은 몇 년 전에 도난을 당해 마을주민들이 새로 만들어 올려놓은 것이다. 돌탑은 대관령 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으로부터 성황당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둘러쌓은 것으로 판단된다. 돌탑은 다른 지방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바람이 심한 강릉의 지형적 조건이 만들어 낸 특징적인 양식으로 보인다. 돌탑이 주요소이지만 이곳은 돌탑이 더 눈에 띄며 자체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데 돌담 입구의 오른쪽에 소나무, 왼쪽에 낙엽수가 있어 출입구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 성황당 및 성황당을 둘러싸고 있는 돌탑·돌담 부분은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구정리 당산숲의 핵심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사진 1, 2 참조).

2. 40마을별 3대 구성요소 모습

(1) 내륙

내륙의 20마을 당산숲에서 당산나무는 16곳으로 80%, 성황당은 9곳으로 45%(제단까지 포함시 15곳, 75%), 돌탑은 6곳으로 30%가 나타났다. 당산나무를 정해두지 않은 경우는 숲 전체를 당산나무로 여기므로 당산나무가 뚜렷하지 않은 4개 마을을 포함하여 당산나무는 100%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두 개의 시설물 중 하나라도 나타나는 경우는 14곳(70%)인데, 제단까지 성황당 영역에 포함할 때에는 두 개의 시설물이 모두 보이지 않는 경우는 남원시 신기마을과 함안군 서촌마

을 두 곳 뿐이다(표 4).

옥천 마티마을의 돌탑은 충청북도 민속자료 제1호 [옥천 청마리 제신탑(祭神塔)]로 지정되어 있다. 이 제신당은 마한시대(馬韓時代)부터 마을 경계 표시의 수문신(守門神)으로서 풍수상의 액막이 구실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보통은 당산숲 안에 돌탑이 있으나 마티마을은 분리되어 있는데, 돌탑 위의 입석 좌측에 진하게 보이는 부분이 당산숲이다(사진 3a). 이곳의 유적은 돌탑, 짐대(솥대), 장승, 산신당 등 4개의 형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신당은 마을 위의 소나무 당산나무 등의 당산숲을 의미한다.

봉화 월계마을의 성황당은 원래 당산숲 안에 있었으나 1970년대 말 옛 것을 타파한다는 미명하에 저질러진 성황당 철거의 피해를 모면하기 위해 주민들이 산비탈쪽으로 옮겨 놓은 것이다(사진 3b). 보성 당촌마을의 소나무 당산숲 앞에 있는 성황당은 전라남도 민속자료 제34호로서, 별신당(別神堂)이라는 현판을 달고 있으며, 안내문에는 별신당 상량문에 開國 506年이라고 적혀 있어 건립연도를 알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108년 정도 되어 당집의 옛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사진 3c).

의령 세간리는 산비탈에 20×20m 크기의 작은 당산숲이 있고 임진왜란 당시 광재우장군이 북을 매달고 의병을 훈련시켰다는 느티나무인 현교수(천연기념물 제493호)와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302호)가 있다. 영양 주남리는 주로 비술나무와 시무나무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제단 안의 당산나무인 소태나무는 고사하여 그 자리에 어린 소태나무 세 그루가 식재되어 있다(사진 3n).

(2) 해안가

해안가 20마을 당산숲에서 당산나무는 11곳으로 55%, 성황당은 15곳으로 75%(제단까지 포함시 18곳, 90%)가 나타났는데, 내륙과 달리 돌탑은 20개 마을 모두에서 볼 수 없었다. 돌탑은 볼 수 없었으나 특히, 제주도의 경우 예전에 해안가에 많이 보이던 돌탑인 방사탑이 많이 멸실된 것과 마찬가지로 육지의 해안가에서도 많이 없어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내륙과 마찬가지로 당산나무를 정해두지 않은 경우는 숲 전체를 당산나

표 4 당산숲의 개념과 관련한 당산숲의 3대 구성요소 보유 현황

구분	NO	마을명	당산숲 내 3대 구성요소 보유 현황			마을숲 내
			당산나무	시설물		
				성황당(당집)	돌탑	
내 륙	1	옥천군 마티마을	○	-	○	마을숲이 있는 7개 마을 (동해시 괴란마을 등)에서 마을숲 내에 당산나무, 성황당, 돌탑은 어느 하나라도 나타나지 않음
	2	남원군 노치마을	○	제단	○	
	3	강릉시 구정리	○	○	○	
	4	영월군 문곡2리	-	○	-	
	5	장수군 양신마을	○	-	○	
	6	봉화군 월계마을	-	○	-	
	7	영덕군 도천리	-	○	-	
	8	화순군 동산마을	○	제단	-	
	9	보성군 당촌마을	○	○	-	
	10	의령군 새간리	○	제단	-	
	11	동해시 괴란마을	-	○	-	
	12	단양군 북하리마을	○	○	-	
	13	남원시 신기마을	○	-	-	
	14	영양군 주남리	○	제단	-	
	15	포항시 덕동마을	○	제단	-	
	16	안동시 하회마을	○	○	-	
	17	함안군 서촌마을	(○)	-	-	
	18	원주시 성남리	○	○	-	
	19	순천시 운옹리	○	제단	○	
	20	장수군 송천마을	○	-	○	
해 안	21	속초시 외옹치마을	-	○	-	마을숲이 있는 9개 마을 (고창군 동호리 등)에서 마을숲 내에 당산나무, 성황당, 돌탑은 어느 하나라도 나타나지 않음
	22	부안군 진리	-	○	-	
	23	해남군 증도마을	○	○	-	
	24	해남군 외암마을	○	○	-	
	25	완도군 달도리	-	○	-	
	26	장흥군 남포리	-	제단	-	
	27	고흥군 선정마을	○	제단	-	
	28	포항시 칠포1리	-	○	-	
	29	완도군 맹선리	○	○	-	
	30	고흥군 신금마을	-	○	-	
	31	서귀포시 보목동	○	○	-	
	32	무안군 월두마을	○	-	-	
	33	완도군 당인리	-	○	-	
	34	완도군 장좌리	○	○	-	
	35	고창군 동호리	○	○	-	
	36	사천시 대방동	○	-	-	
	37	남해군 원천마을	○	제단	-	
	38	완도군 정도리	-	○	-	
	39	완도군 예송리	○	○	-	
	40	서귀포시 온평리	-	○	-	



사진 3 내륙 마을 당산숲의 3대 구성요소 모습

무로 여기므로 당산나무가 뚜렷하지 않은 9개 마을을 포함하여 당산나무는 100%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돌탑이 안 보이므로 두 개의 시설물 중 하나라도 나타나는 경우 즉, 성황당이 있는 곳은 15곳(75%)인데, 제단까지 성황당 영역에 포함할 때에 아무 시설물이 없는 곳은 무안군 월두마을과 사천시 대방동 두 곳 뿐이다(표 4). 그러므로 두 개의 시설물 중 하나라도 나타

나는 비율은 2000년에 보고된 60%에 비해 내륙은 10%, 해안가에서는 15% 높은 것이다.

완도군은 당산숲이 잘 보전, 관리되고 있어 당산숲의 보고(寶庫)라 할 수 있다. 해남군과 완도 본도 사이에 있는 섬마을인 달도마을의 성황당은 당산숲의 제일 높은 곳, 철탑 좌측의 숲 안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위치하고 있다. 당인리의 당산숲은 마을 뒷산 초입의 밭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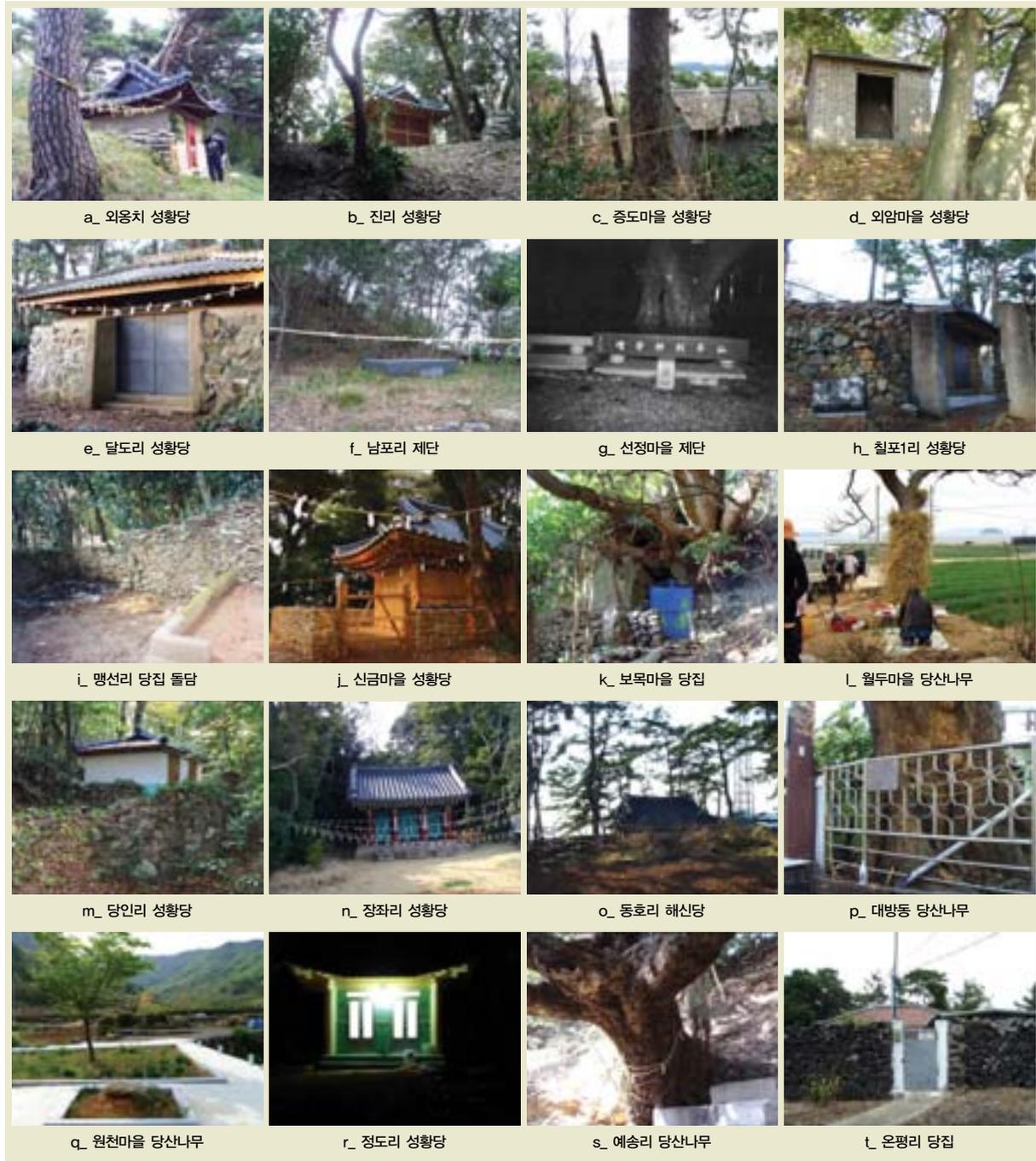


사진 4 해안가 마을 당산숲의 3대 구성요소 모습

나 소류지에 접해 있는데, 당산숲 내 성황당 앞쪽의 물길은 비가 올 때만 흐르는 건개천이다. 완도 장좌리 마을 앞 150여m 지점에 있는 장도(將島)는 통일신라시대에 장보고대사가 청해진을 설치하고 동남아 해상권을 장악했던 곳으로 사적 제308호이다. 장도의 당숲은 현재 길이 40m, 폭 21m, 둘레길이 117m의 작은 규모로 남아 있고, 안에 당집이 신축되어 있다(사진 4n). 원래

당숲의 규모는 더 컸을 것이나, 농가의 밭이 숲을 잠식하며 작아졌을 것이다. 장도는 원래 사유지이고 당숲 주변에서 농사를 지었으나 10여 년 전 쯤 완도군청에서 장도를 사 들이고 현재 유적지 복원사업 중이다.

완도 정도리의 두 개의 당산숲은 우리나라 해안가 당산숲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숲의 구조, 규모, 품격이 잘 보전되어 있으며 대단히 아름

답다. <사진 4r>은 동산 위 할아버지 당산숲 내의 성황당으로서 이전의 당집을 헐고 최근에 신축한 것이다. 고창 동호리의 곰솔림 당산숲은 해안가 동산에 있고 당집인 해신당(海神堂)은 동산 위 끝부분에 있는데<사진 4o>, 그 앞은 군 초소가 있어 접근이 막혀 있다. 곰솔림 마을숲은 해안가 평지에 있다. 내륙쪽에는 팽나무림 당산숲과 당산목 세 그루가 있다.

서귀포 보목동의 당산숲은 내륙쪽에 있는데, 바다로 흘러가는 하천 옆 작은 동산에 위치한 1,250㎡의 작은 면적이며, 당집은 암석에 설치된 철문의 안쪽인 동굴속에 있다<사진 4k>. 포항 칠포리의 당산숲에 대해 포항시청 홈페이지에는 칠포리 마을 뒤의 숲을 망재아(望齋芽)라 하는데 일설에 의하면 신라시대부터 생긴 자연림이며 지금도 남아 있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七漣望齋藪로 알려져 있다. 10여년 전 쯤 난 큰 산불로 인해 당숲과 마을을 제외한 주변이 모두 불에 타 마을에서의 가시거리는 전부 민둥산이다. 당산숲은 250×30m 크기로 남아 있고, 당산숲 안에 있는 성황당<사진 4h> 위쪽 9m 지점에 폭 50~60cm, 높이 90cm의 돌단이 있는데 양 옆은 돌을 쌓고 가운데는 흙을 채워 넣은 것으로 당산숲의 경계인 듯하며, 산불은 이 돌 단에서 꺼졌다. 이 돌 단이 산불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당산숲 아래 마을집은 모두 불타고 폐촌되었을 것이다.

3. 당산숲 문화

전국적으로 볼 때 현재 잘 남아 있는 당산숲들은 나뭇잎 하나라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는 마을 자체의

불문율에 의해서 보전되고 있다(최재용과 김동엽, 2003). 참고로, 관광산업으로 농촌을 지키기 위해 농촌관광을 시작한 유럽은 “농촌을 전통적인 모습 그대로 지킬 사람은 농민들 뿐”(라크멘-영국 환경식품농촌부 농촌개발담당관)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당산제는 당산숲에 대한 의무·권리를 다하겠다는 약속으로서, 당산제 폐지는 당산숲에 대한 의무·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최재용, 2005). 실제로, 당산제가 폐지된 숲은 관리를 하지 않아 당산숲으로서의 위상이 상실됨과 동시에 그 매력을 잃게 되며,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잡목림으로 방치되게 된다. 한 예로 완도군 장좌리의 당산제는 정월대보름 새벽 5시경 시작하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은 하루 전 완도에 도착해 숙박을 한 후 시간에 맞추어 당산제 시작장소인 마을회관에 나와야 한다. 이와 같이 관광객들이 시간과 경비를 기꺼이 소비하며 찾는 것은 당산제가 있기 때문이다. 규모가 큰 숲일지라도 당산제가 폐지된 숲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힘이 없다. 당산숲의 유지·관리가 가능한 이유는 당산제를 통해 당산숲을 지키고 있는 농산어촌 마을주민들이 있기 때문이다(최재용, 2005). 40마을의 당산제 현황은 <표 5>와 같다.

당산제를 지내는 날짜는 전국적으로 볼 때 음력 정월대보름이 가장 많다. 무안 월두마을, 영양 주남마을, 포항 덕동마을 등도 원래는 정월대보름에 지내왔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날짜를 옮긴 것이다. 또한 완도군의 경우는 많은 마을이 당산제 날짜를 정월대보름에서 설날인 정월초하루나 초이틀로 근래에 많이 변경하였는데, 마을에 사람들이 부족하다 보니 객지에 나가 사

표 5 40마을의 당산제 현황

당산제 날짜	마을명	비고
정월대보름	달도, 장좌, 선정, 남포, 복하, 화순, 당촌, 하회, 운용, 월계, 도천, 마티(탑신제, 집대제, 장승제)	마티(산신제-정월초 길일)
정월초하루-이틀, 사흘	당인, 증도, 외암, 정도(초이틀), 맹선, 문곡, 괴란(초하루, 음 5월 5일), 양신(초사흘)	예송, 대방(선달 그믐)
음력 3월, 9월	외옹치(음 3월 3일, 9월 9일), 칠포(음 3월 15일)	성남(음 4월초이레, 9월 9일)
기타	구정(음 10월초 길일), 덕동(양력 8월 15일 광복절), 월두(음 2월 1일), 동호(음 2월 1일), 신기(음 2월 1일), 노치(음 7월 15일), 세간(음 정월 초엿흘), 온평(음 7월 7일), 주남(음 7월 보름), 원천(음 10월 보름)	보목(음 1월 13일, 2월 12일, 11월 14일), 서촌(폐지)

는 젊은 사람들이 연휴를 이용해 고향을 방문할 때 같이 당산제를 지내는데 동참하고 힘을 보탤 수 있기 때문이다. 날짜를 옮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나,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당산제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농촌에 젊은 인력이 없다. 한편, 본 조사대상지인 속초 외옹치마을 이외에 양양의 남해 2·3·4리, 물치리 등 동해안의 많은 마을들은 음력 3월과 9월 두 차례 당산제를 지낸다는 특징이 있다.

(1) 내륙

당산제를 직·간접적으로 참관하였던 마을을 위주로 당산숲문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릉 구정리는 당산제 1주일 전부터 숲과 주변을 정리하며, 음력 10월 초 날을 잡아서 거행하는 당산제는 2001년의 경우 음력 10월 보름(양력 11월 29일)에 거행되었는데, 당일 저녁 12시경 시작하여 다음날 새벽 1시 반경 끝마쳤다. 원주 성남리 당산제는 불교와도 관련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당산제 날짜가 음력 9월 9일 이외에 사월초이레 즉, 사월초파일에도 지내기 때문이며 또한, 마을 위쪽 절골의 산신당숲 맞은편에는 폐사된 절인 '석남사 유적지'가 있다.

남원 노치마을 당산제는 전에는 음력 초이틀 밤에 지냈으나, 지금은 백중날인 음력 7월 15일 낮에 지내며, 신기마을은 음력 2월 초하루 밤 12시경 지낸다. 당산숲 30여 m 위에 백두대간 등산로가 있는 노치마을은 백두

대간이 통과하는 국내 유일의 마을로 알려져 있는데, 마을에서 당산숲을 보는 방향으로 백두대간 마루금의 좌측 빗물은 서해바다로 가고, 우측 빗물은 동해바다로 흐른다. 그러나 마을앞은 논, 밭이 있는 평지인데, 마을 주민 이야기로는 마을앞 멀리 논 사이에 보이는 소나무 두 그루가 있는 곳에 동산이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당시 없어졌으며, 그 앞의 비닐이 있는 곳은 일본인들이 둠벙을 만든 것을 해방 후에 메워서 밭으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 일제에 의해 악의적으로 훼손된 백두대간 마루금의 원형 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화순 동산마을은 당산제를 지내는 정월대보름 전날 당산제 지낼 준비 작업을 하는데, 마을회관에 모여 회의를 한 후, 할아버지 당산나무와 할머니 당산나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금줄을 치며, 황토를 뿌린다. 이때 당산나무 두 곳 앞에는 구덩이를 파고 잘 드시라는 의미에서 음식을 묻는다. 눈발이 날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인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였는데, 그러한 정성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사진 5f).

영양 주남리는 전에는 정월대보름 등 1년에 두 번 당산제를 지냈으나, 지금은 사람 부족으로 음력 7월 보름 낮에 지낸다. 영덕 도천마을은 정월 대보름 즉, 14일 밤 12시경 지낸다. 포항 덕동마을은 마을에 당산제를 지내는 계(契)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월대보름에 지내 왔으나, 지금은 광복절인 양력 8월 15일에 지낸다.

의령 세간리는 7-8년 전 까지만 해도 정월 9일 밤 12



사진 5 당산제를 비롯한 당산숲문화



사진 6 고흥 선정마을의 당산숲과 갯벌 및 당산제

시경 지냈으나, 지금은 정월 초열흘 아침 10시경 지낸다. 당산제를 지낼 때에는 당산숲 이외에 마을에 있는 거목인 현고수(느티나무)와 은행나무에도 금줄을 달고 제를 올린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곽재우장군의 생가가 최근 마을 내에 복원되었으며, 매년 4월 21일 의령군 전체가 참가하는 의병제전 때에는, 곽재우장군이 군사들을 훈련시킬 때 사용한 북을 매달았던 현고수 앞에서 의령군수(郡守)가 제를 올림으로써 제전이 시작된다.

(2) 해안가

동해안 당산제가 서·남해안과 다른 점은, 용왕제를 지내는 전통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외옹치마을은 매년 당산제를 지내고, 용왕제는 3년마다 한번씩 1박 2일간 지내는데, 2006년 9월에 용왕제를 지냈으며, 용왕제 하루 전날 마을주민들은 당산숲 주변을 벌초, 청소한다. <사진 5d>는 간밤에 당산숲의 성황당 앞에서 무당(shaman)을 초빙하여 제를 지내고 난 후, 해변가 방파제에서 마을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무당이 끝마무리 제를 진행하는 모습인데, 물할론 이외에 샤마니즘(shamanism) 전통이 당산숲에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안 끝쪽은 군 초소가 있어 접근할 수 없다.

고창 동호리 당산제는 당산목 앞에서 음력 2월 1일 새벽 3시경 지낸다. 마을 할머니 이야기로는 해신당은 당할머니인데, 이제까지 음력 2월 20일 제를 올렸으나 올해는 안지낸 것 같다고 한다. 무안 월두마을은 당산제 때 할머니 당산나무에 옷입히기 행사를 하는데, 길게 뻗은 짚을 할머니 당산나무에 감아주는 것이다. 장흥 남포리는 마을에 사람이 많지 않아 간신히 풍물패를 구성하여, 제주인 주민 부부 내외가 제를 지낸 후에 숲

으로 가 풍물을 치며 예를 올릴 수 있었다.

고흥 선정마을의 당산숲 앞에는 넓은 갯벌이 있어 주민들은 이 숲에 갯벌작업용 나무썰매를 놓아두고, 갯벌일을 할 때는 자기 것을 찾아 나간다. 꼬막 등 많은 패조류를 수확할 수 있는 이 갯벌은 주민들의 주 소득원이다(사진 6a, 6b). 당산숲은 뒤로는 바닷바람으로부터 논과 마을집을 지켜주고, 앞으로는 주민들의 일터인 갯벌 환경을 보호하여 주는 등 마을에 많은 혜택을 베풀고 있다. 2007년 여름에 고흥지역이 심한 태풍 피해를 입었는데 그해 10월초 답사시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당산숲 뒤의 벼가 쓰러지지 않은 것을 보고 당산숲의 실질적인 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많은 혜택을 베풀고 있는 당산숲에 대해 주민들은 숲에서 매년 정월대보름 밤에 정성을 다해 당산제를 지내는데, 어린이들까지 참가하는 등 거의 모든 마을사람들이 참가한다. <사진 6c>와 같이 낮에 마을앞 길에서 노제를 지낸 후, 저녁에 마을회관 앞에서 제를 올리고 나서 다시 당산숲에 가서 당산제를 지낸다. 어린이들이 당산제에 참여하는 것은 마을회관에서 당산숲으로 횃불을 들고 내려가며 길을 안내할 때인데, 주민들은 어린이교육 차원에서 마을회관에 있는 확성기로 초등학교 전후의 어린이들을 모이게 한 후, 횃불을 들게 함으로써 당산제에 참여하도록 배려하고 있었다(사진 6d).

해남 증도마을 옆은 방조제로 막혀 있으나 다행히 당산숲이 있는 마을앞 해변은 간척사업이 되지 않아 갯벌이 살아 있으며, 주민들은 꼬막 등 풍부한 수산물을 수확하고 있다. 당산제는 정월초하루 새벽 1시경에 시간을 엄격하게 지켜서 지낸다. 정월초하루 저녁 11시에 거행된 완도 당인리의 2008년 당산제에는 주민 여러 명

이 산에 올라 왔으나 제주, 마을이장 등 네 분만 제례에 참가하였다(사진 5a).

당산제에서 모시는 당산신위(堂山神位)는 대부분 토지, 나무 등 자연신이지만, 완도 장좌리, 달도리는 역사적 인물이 당산신으로 모셔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당집 앞의 안내문에 따르면 장좌리의 장도는 통일신라시대에 장보고대사(810년 전후-841)가 청해진(828-851)을 설치하고 동남아해상권을 장악했던 곳으로 국가 사적 제308호이고, 장도에서 베풀어지는 당산제와 당국은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8호(1995년 지정)로서, 상쇠였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당제와 당국의 가락을 체계화한 김봉도가 예능보유자이다. 당제는 장보고대사와 송징장군 등 4위의 인격신을 모시고 있으며, 당제를 모실 때 행하는 농악은 1차 굿부터 12차 굿으로 되어 있고 옛날 군대의 진법형식을 띠고 있어 군고악(軍鼓樂)이라고도 불리운다. 이 군고악이 어느 시대부터 유래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마을사람들은 장보고대사가 돌아가신 뒤 장보고대사와 군사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추모행사로 오늘에까지 전래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이 대를 이어 계속해 온 이 당산제는 1,100년이 넘는 역사와 함께 당산제의 원형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도 당산제는 주민들의 지극한 정성과 높은 품격으로 치루어지고 있었다. 2005년경 이 당산제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30여 명 정도의 관광객이 새벽 5시에 당산제가 시작되는 마을회관에 모인 후 풍물패를 따라 깃별바닥을 걸어서 장도에 가 당산제를 참관하였다(사진 5c). 당산제가 끝난 시각에는 밀물이 들어와 배를 타고 마을로 돌아 왔는데, 이때 배 위에서 거행되는 선상제를 볼 수 있다.

달도리는 이순신장군이 당산신으로 모셔져 있는데, 호남대장군 신위로 되어 있다(사진 5i). 2008년 당산제를 마치고 완도문화원 주최로 마을 우측의 망피산 약썸 복원제가 거행되었는데, 문화원 자료에 의하면 임진왜란(1592-1598) 중 병에 걸려 인사불성이 된 장군이 이 약썸물을 마시고 하루 뒤에 병이 완치(1597년 8월 24일)되어, 9월 16일 울돌목에서 왜선 131척을 수장시키고 나라를 구할 수 있었는데, 이 약썸이 없었다면, 그래서 장

군이 그 때 돌아가셨다면 조선은 1905년이 아니라 400여년 전에 망했을 것이란 평과 함께 마을에 대한 완도 문화원, 주민들의 자부심이 컸다. 그 후 임진왜란이 끝나고 피난갔던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약썸의 효험을 전해 듣고 망피산에 사당을 지어 매년 정월보름에 약썸 물을 헌수하는 당제를 모신 것으로 되어 있다. 당산제 후에는 저녁 늦게까지 풍물패가 농가와 마을내의 가게 등을 돌며 지신밧기 행사를 해 주는데, 흥을 돋우는 풍물소리가 집에 북을 불러 오는 것으로 여겨 각 가정집의 부녀자들은 이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후하게 맞이한다(사진 5j).

완도 예송리의 경우, 마을할머니 이야기로는 당산제는 당산숲에서 선달 그림 저녁에 지내며, 당국은 정월초하루 낮 2시경 지내고, 헌식(고사)은 3시경 한다고 한다. 한편, 옛당산숲인 해변숲에는 이전의 당산나무 해송이 있는데 5년 전 경까지 이 나무앞에서 해신제를 지냈으나, 지금은 지내지 않는다고 한다.

완도 맹선리는 당산숲이 있는 내륙쪽의 윗마을(소선)에서 정월초하루에 당산제를 지낸다. 2004년 설날 다음날인 1월 23일에 답사하였고, 전날에 제를 지낸 흔적으로서, 담으로 둘러 싸인 당집 마당가에 제물이 차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맹선리가 있는 소안도는 일제강점기간 중 많은 애국지사들과 주민들이 고초를 겪은 항일성지로서, 낡은 당집의 상량문에는 건립 1922년 윤5월 21일, 개축 1979년 6월 12일로 되어 있어, 일제강점기에도 당집을 짓고 당산제를 유지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사진 5e). 또한, 부안 진리 당숲의 성황당도 3~4년 전 경 답사 시에는 허름한 당집의 상량문에 소화16년이라고 적혀 있어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것이었는데, 올해 답사 시 2006년에 상당한 새 건물로 신축되어 있었다.

사천 대방동 당산나무 앞의 1993년도에 만든 안내판에는 당산목의 수령이 725년(각산산성 축조시 식재)으로 되어 있으니 현재는 740년이다.

육지와 달리 제주도는 당산제를 지내는 당산숲 이외에 포제를 지내는 포제단이라고 부르는 제례장소가 하나 더 있다. 서귀포 온평리 포제단은 돌담안에 제단

만 있을 뿐, 들레에 나무는 없다. 해안가 당산숲 내 당집인 본향당에서의 당제는 마을 전체가 불공을 드린다고 하는데, 음력 7월 7일 아침 6시경 지내며, 매달 7, 17일은 개인적으로 찾아 간다. 내륙의 당산숲 내 당집인 뱀당(서편당)에서는 매달 7, 17일 개인적으로 찾아 가며, 포제(천제)는 음력 정월달 초승간 좋은 날을 택해 지내는데, 포제단 주변은 잡목으로 둘러 싸여 있으며 땅 주인이 옮기라고 요구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참고로, 마을 안에 있는 제주도 기념물 제17호인 혼인지(婚媾池)는 황노알유적과 연결된 장소로서 구실жат나무 등으로 이루어진 숲에 싸여 있다.

서귀포 보목동은 서귀포 시가지와 가까워 도시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주민 면담 결과, 여자들이 지내는 당제는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으나, 남자들이 지내는 포제는 사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진 5b는 보목마을회관 외벽에 있는 보목마을 당 신화(堂 神話)를 나타낸 벽화로서, 보목마을 어린이들의 작품이며, 주민들의 당 문화에 대한 인지도를 말해주고 있다. 당제는 음력 1월 13일, 2월 12일, 11월 14일 저녁 11시경 부녀자들만 참가하여 지내는 특징이 있으며, 제물은 마을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집집마다 각자 준비하고 제를 주관하는 무당이 있다. 포제는 음력 정월 정해일(돼지날)에 지낸다.

결론

우리나라 농어촌의 실생활에 살아있는 전통문화경관인 당산숲은 마을숲과 구분되지 않은 채 혼용되어 왔으며, 마을숲의 일부로 이해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산숲은 마을의 전통문화와 연결되어 마을숲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특성인 3대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다. 당산숲의 3대 구성요소는 특히, 당산숲의 복원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이다. 전국에 40,000여 농촌마을이 있으나 우리의 전통경관인 당산숲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은 많지 않다. 농촌개발과 관련된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시책은 많은 고난속에서도 우리의 전통경관을 버리지

않고 유지·관리함으로써 국토환경과 전통문화를 지켜 온 마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림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농촌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농촌개발의 과제이다. 최근의 자료를 보면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도 지역에 남아 있는 성황당 등의 당집, 남해안 별신굿 등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이미지를 높이면서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 앞의 머리말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방앗간, 성황당 등 사라져가는 농어촌의 문화공간을 정비, 활용하겠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추진(안)」같은 것은 그러한 문화공간을 유지, 관리하는 마을을 발굴하여 지원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당산숲을 보전, 관리하고 있는 마을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당산숲을 유지해 오고 있는 마을은 그 동안의 개발과정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마을이 대부분으로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당산숲을 지켜준 데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조약한 마을 공공시설(특히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마을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당산숲을 더욱 잘 보전·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당산숲 공간에 대한 지원보다도 오히려, 그 이외의 마을 생활공간과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 마을주민 소득제고를 위한 사업지원 등에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당산숲과 3대 구성요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경관을 보전·관리·활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외국관광객들에게는 매력있는 관광자원으로 소개되어 국가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 고 / 문 / 헌

- 강현경 · 방광자 · 이승제 · 김학범, 2004, 「생육환경 분석을 통한 마을숲의 관리방안-경상도와 강원도의 주요 마을숲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22권 2호, pp. 63-74
- 국립민속박물관, 2007, 『한국의 마을신앙』
-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6, 「마을숲과 참살이」 『2006학년도 한국학연구원 생명 · 환경분과 기획학술대회 자료집』
- 김기혁, 2008, 「고지도에 대한 시선들」 『대한지리학회보』 제97호, pp. 3-6
- 김덕현, 1986, 「전통촌락의 洞藪에 관한 연구-安東 내앞마을의 開湖松을 중심으로-」 『지리학논총』 제13호, pp. 25-33
- 김학범 · 장동수 · 박복조, 2008, 「전통 마을숲 복원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26권 2호, pp. 42-50
- 김학범, 2005, 「마을숲과 문화」 『전통 마을숲의 이해와 복원운동의 방향 심포지엄 자료집』, pp. 5-22
- 김학범 · 장동수, 1994, 『마을숲-韓國傳統部落의 堂숲과 水口막이-』, 열화당
- 김학범 · 장동수, 1993, 「古文獻에 나타난 한국마을숲의 始原에 關한 研究」 『한국정원학회지』 제11권 1호, pp.19-40
- 김효정 · 김태식 · 이재근 · 서정영 · 정근, 2008, 「천연기념물 및 시 · 도 기념물 노거수 실태 비교를 통한 지정기준 설정 기초연구」 『2008년도 한국전통조경학회 추계학술논문발표회 자료집』, pp. 78-82
- 남연화 · 윤영환, 2002, 「시대적 배경을 통해 본 마을 숲의 변천과 보존-성남리 성황림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정원학회지』 제20권 2호, pp. 23-32
- 농림수산식품부, 2008,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추진(안)』
- 농림부, 2006, 『농촌경관의 보전 · 형성 · 관리를 위한 농촌경관종합대책 수립방안(안)』
- 농어업 ·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2005,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
- 문화재청, 2003, 『마을숲 문화재 자원조사 연구보고서: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지역. 문화재청 보고서』
- 민병욱 · 김정하 · 하세봉 · 김종세 · 유승훈, 2008, 「콘텐츠 부산 : 지역사와 도시민속을 활용한 브랜드화」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 연구센터 보고서』
- 박재철, 1998, 「전북 농어촌 지역 마을숲과 해안숲의 비교 고찰」 『한국조경학회지』 제26권 2호, pp.133-142.
- 박재철, 1999, 「농촌정주생활권내의 마을비보숲과 마을쉼터숲의 비교 고찰-진안군 지역을 사례로-」 『한국조경학회지』 제27권 3호, pp. 32-38
- 신상섭 · 노재현 · 김홍균, 2008, 「임실 방동마을의 원형경관 찾기와 식생복원설계」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26권 3호, pp.78-86.
- 신상섭, 2004, 「한국의 전통마을에서 본 환경설계 원칙」 『한국의 전통생태학』, pp. 452-483
- 유제헌, 1979, 「農村景觀의 形態的 研究 -驪州 · 利川地方을 中心으로-」 『지리학논총』 제6호, pp. 96-115
- 윤영환 · 김학범 · 장동수 · 김정태, 1998, 「강원도 동해안지역 정주지 구성요소로서 풍숲(風藪)의 경관과 그 효용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제16권 1호, pp. 59-81
- 이상훈, 2005, 「마을 숲의 사회학적인 의미-진안 지역을 중심으로-」 『전통마을숲의 이해와 복원운동의 방향 심포지엄 자료집』, pp. 23-51
- 이선, 2008, 「우리나라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의 연원(淵源)과 제도(制度)에 관한 소고(小考)」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26권 3호, pp. 41-53
- 이창석 · 유영환, 2001, 「한국의 문화경관, 그 실제,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가치 평가」 『한국생태학회지』 제24권 5호, pp. 323-332
-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임업시험장, 1938, 『朝鮮의 林藪』
-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1919, 『朝鮮巨樹老樹名木誌』
- 장동수 · 이규목, 1997, 「경주 · 포항시 전통도시숲(읍수 · 임수)의 보존과 관리,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제15권 1호, pp. 1-15
- 장동수 · 김학범, 1995, 「韓國 傳統都市숲의 變遷特性과 要因에 關한 研究」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13권 1호, pp. 1-11
- 주강현, 2006, 『관해기(觀海記)1-3』, 웅진지식하우스

- 주장현 · 장정룡 · 황헌만, 1993, 『조선땅 마을지킴이』 열화당
- 최재웅 · 김동엽, 2009, 「농어촌마을 당산숲의 입지 및 구조 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27권 1호, pp. 35-47
- 최재웅, 2008, 「농어촌마을 당산숲의 형태 및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재웅 · 김동엽 · 이상화 · 김성기, 2007, 「원주시 성남리 당산숲의 현황 및 경관관리 실태 고찰」 『한국조경학회지』 제35권 3호, pp. 82-91
- 최재웅 · 김동엽, 2007, 「한밤마을과 괴린마을의 사례 분석을 통한 당산숲 · 마을숲 복원 자료 구축」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지』 제10권 4호, pp. 21-30
- 최재웅 · 김동엽, 2006, 「농촌 문화경관 관련시책과 마을숲 · 당산숲의 위상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조경학회지』 제34권 3호, pp. 41-58
- 최재웅 등, 2006, 「농촌지역 마을숲 · 당산숲의 실태」 『어메니티자원으로서 마을숲 · 당산숲의 활용(농촌진흥청 간행물)』, pp. 1-102, 을지글로벌
- 최재웅 · 김동엽, 2005, 「하천경관으로서 당산숲 · 마을숲의 경관생태학적 기능 고찰」 『환경정책연구』 제4권 2호, pp. 31-55
- 최재웅, 2005, 「마을숲 문화가 있는 아름다운 농촌마을-농촌마을 당산숲 · 마을숲의 아름다움」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주최 2005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전통마을숲 복원운동 세미나 자료집』, pp. 49-60
- 최재웅, 2004a, 「마을숲 문화가 있는 아름다운 우리 농촌마을」 『한국의 전통생태학』, pp. 378-407, 사이언스북스
- 최재웅, 2004b, 「농촌관광 인프라-당산숲」 『농촌자원과 생활』 제98호, pp. 63-67
- 최재웅 · 김동엽, 2003, 「농촌 문화경관으로서 강릉시 구정리 마을숲의 경관 특성」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지』 제38권 4호, pp. 171-181
- 최재웅 · 김동엽, 2000, 「마을숲문화가 있는 농촌 마을숲의 구조 및 보전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제18권 3호, pp. 51-64.
- Choi, J.U. and D.Y. Kim., 2007,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 of Dangsang forests near seashore of south coast in Korea', The 7th IALE world congress proceeding(Part 2), Wageningen, Netherland, p.755
- Choi, J.U. and D.Y. Kim., 2005, 'The role of rural community forests including Dangsang forest as a landscape element in Bukha-ri, Danyang-gun, Korea', The 42nd IFLA world congress proceeding, Edinburgh, Scotland
- Choi, J.U. and D.Y. Kim., 2004, 'The multifunctionality of Dangsang forests in rural communities in Korea', The 41st IFLA world congress proceeding, Taipei, Taiwan, pp. 434-445
- Choi, J.U. and D.Y. Kim., 2003, 'Effects of rural community forests on local stream as landscape ecological resources in Korea', The 6th IALE world congress proceeding, Darwin, Northern Territory, Australia, pp. 30-31
- Choi, J.U. and D.Y. Kim., 2002, 'Rural community forests as landscape ecological resources in Korea', The 8th INTECOL(International Congress of Ecology) proceedings, Seoul, Korea, p.41
- Choi, J.U. and D.Y. Kim., 2001, 'The structure and condition of rural community forests in Korea', The 38th IFLA world congress proceeding, Singapore, pp. N11-8
- Forman R.T.T., 1995. Land Mosaics-The Ecology of Landscape and Reg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홍선기 · 김동엽(역), 2000, 『토지모자이크-지역 및 경관생태학』,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Lee, Kyoo-seock. 2007. 'Bee-Bo Forest: Traditional Landscape Ecological Forest in Korea in Landscape Ecological Applications in Man-Influenced Areas'(ed. by Hong et. al.), Springer-Verlag, p.392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0051751465&code=950313, 2008, 「그 많던 제주 포구들 원형 사라졌다」 『인터넷 경향신문』
-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69226.html, 2006, 「민족문화상징 100 : 당숲」 『인터넷 한겨레신문』
-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342108>, 2007, 「바다와 민속」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Mun Hwa Jae Vol 42, No. 01, May 2009, pp. 188-209

Copyright ©2009,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 Study for the Three Elements of Dangsang Forest and Culture in Rural and Coastal Villages

Choi, Jai Ung

Dept. of Agricultural Environment,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eceived : 1 December 2008 | Revised : 9 March 2009 | Accepted : 19 March 2009

Abstract

Dangsang forests had been established by local residents several hundred years ago. They were disturbed in various ways, but still remain in many villages where dangsang festivals are held every year. Although the remaining Dangsang forests represent Korean rural cultural landscapes, their characteristics still remain to be uncovered.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understand the three elements, Dangsang tree (Divine tree), shrine and stone tower, and to investigate the culture at inland areas and seashore areas relation to Dangsang forests. Twenty cases of Dangsang forests at inland areas and twenty at seashore areas were investigated.

There were nine shrines and six stone towers found out of twenty inland Dangsang forests. Fifteen shrines were found out of twenty seashore Dangsang forests. Stone tower was not found at seashore areas. Fifteen events of dangsang festival were investigated. Dangsang festival appeared to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to preserve Dangsang forest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Dangsang forests are, as landscape elements at inland and seashore areas, proved to have a potential for the improvement of cultural and natural landscapes in the country.

Keywords | Dangsang Forests, Rural Community Forests, Dangsang Festival, Three Elements of Dangsang forest, Cultural Landscape